산업통상부 지역에는 성장을, 기업에는 활력을 보도참고자료

보도시점 배포즉시 배포 2026.3.19.(목)

산업부, 중동 리스크 대응 강화와 지역·기업 체감형 성과 창출에 정책역량 집중

-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 주재 확대간부회의 개최 -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3월 19일 확대간부회의를 개최하고, 최근 중동 정세 등 대내외 불확실성에 대응한 산업자원안보 대응체계를 점검하는 한편, 지역과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성과 창출 방안을 논의하였다.

김 장관은 회의에서 현재의 위기를 일시적 변동이 아닌 구조적 리스크로 인식하고, 수입선 다변화, 비축, 대체원료 확보 등 중장기 대응체계를 차질 없이 구축해 나갈 것을 당부하였다. 아울러 고유가 대응, 수출기업 및 산업 피해 최소화 등을 위한 재정 지원도 적기에 뒷받침될 수 있도록 철저히 대응할 것을 주문하였다.

또한, 지난해 12월 업무보고에서 제시한 '지역에는 성장을, 기업에는 활력을'이라는 정책 방향을 언급하며, 이제는 방향 제시를 넘어 실질적인 성과를 만들어 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하였다. 특히 각종 사업 추진 과정에서 지역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지원 성과를 창출해 나갈 것을 지시하였다.

이와 함께 제조업 AI 전환 정책인 M.AX, 대미투자특별법 후속조치 등 주요 과제와 관련하여 속도감 있는 실행과 현장 중심의 성과 창출을 강조하고, '가짜 일' 줄이기 관련해서도 불필요한 업무를 줄이는 데 그치지 않고 기업과 산업에 실제 변화를 만드는 '진짜 일'에 집중해야 한다고 당부하였다.

담당 부서	정책기획관 기획재정담당관실	책임자	과 장	손용하 (044-203-5520)
		담당자	서기관	조기훈 (044-203-5525)
			사무관	이수연 (044-203-5521)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참고 산업통상부 장관 모두발언

작년 9월 첫 확대간부회의 이후 6개월 만입니다.
그동안 정말 숨가쁘게 달려왔습니다.

대내외 여건은 계속 흔들렸고,
우리를 둘러싼 판도 빠르게 바뀌었습니다.
우리가 중심을 잡고 대응해 온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최근 중동 상황 대응 과정에서 많은 직원들이
주말과 밤낮을 가리지 않고 애써주시고 계십니다.
먼저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조직개편을 통해 산업자원안보 기능을 강화했는데,
개편 이후 실제로 위기가 닥쳤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번 대응은 조직개편의 방향이
옳았다는 점을 보여준 계기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하는 것은
지금의 위기가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구조적인 리스크로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비상 대응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수입선 다변화, 비축, 대체 원료 확보, 공급망 안정화 같은
중장기 대응체계를 차질 없이 구축해야 합니다.
각 실국은 '위기 대응'과 '구조 개선'을 따로 보지 말고
함께 추진해 주기 바랍니다.

예산도 중요합니다.
고유가 대응, 수출기업과 산업 피해 최소화,
공급망 안정 지원에 필요한 사업은 때를 놓치면 의미가 없습니다.

추경을 포함해 필요한 재정이 제때 뒷받침될 수 있도록
각 실국이 적극 대응해 주기 바랍니다.

예산은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정책의 속도이고, 위기 대응의 실탄입니다.

지난 12월 대통령 업무보고 때
‘지역에는 성장을, 기업에는 활력을’이라는 정책방향을 발표하였습니다.

이제는 방향을 말하는 단계를 넘어,
성과를 만들어내야 하는 시기입니다.

각 정책을 냉정하게 점검하고,
미흡한 부분은 과감하게 보완해야 합니다.

올해 5극3특을 1순위 과제로 놓고 지역을 직접 다니고 있습니다.
현장에 가보면 지역은 절박한 만큼 성장의 의지도 큽니다.

결국 지역이 살아야 기업이 살고, 기업이 가야 지역이 성장합니다.
이제는 지역정책도 선언으로는 안 됩니다.

기업이 실제로 움직일 수 있어야 합니다.
입지, 인력, 정주여건, 규제, 재정지원이 패키지로 작동해야 합니다.

기업이 “지역에 가면 경쟁력이 생기겠구나”라고
느끼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사업을 추진할 때, 지원 대상을 선정하는 단계부터
지역을 보다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제가 지난해 샤오미 북경 자동차공장을 방문했을 때,
서늘한 위기감을 느꼈다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 위기감은 지금도 같습니다. 세상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기술도, 시장도, 투자도 모두 속도전입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M.AX를 강조하는 것입니다.
M.AX는 우리 제조업의 경쟁력과 체질을 바꾸는 일입니다.

얼라이언스를 통해 진용은 갖춰졌습니다.
중요한 것은 실행입니다.

분과별 과제가 현장으로 연결되고,
기업이 체감하는 성과로 이어지고, 그 성과가 확산되어야 합니다.

빠르게 가되, 보여주기식으로 가면 안 됩니다.
속도와 성과, 두 가지를 같이 잡아야 합니다.

통상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과의 관세협상 과정에서 ‘티끌 모아 태산’이라는
마음으로 임해 왔습니다.

큰 원칙도 중요하지만, 결국 결과는 디테일에서 갈립니다.
한 줄, 한 문장, 하나의 표현 차이가
기업의 부담을 줄이고 우리 산업의 시간을 벌어줍니다.

대미투자특별법도 이제는 통과 자체보다 후속조치가 중요합니다.
법 통과는 성과가 아니고 성과 창출의 출발선이니만큼
실제 투자와 기업 지원으로 속도감 있게 이어지게 해야 합니다.

기업은 정부 앞에서 하고 싶은 말의 반도 못하고 갑니다.
기업이 괜찮다고 하면 사실은 어렵다는 뜻이고,
어렵다고 하면 정말 죽을 지경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그 신호를 읽어야 합니다.

산업부는 기업의 언어와 입장을 가장 잘 이해하고,
필요할 때는 그 입장을 대신 말해주는 부처가 되어야 합니다.
결국 모든 것은 디테일입니다.
작은 일 같아 보여도 소홀히 하면 안 됩니다.

보고서 한 줄, 숫자 하나, 기업 애로 하나를 허투루 보면
큰 정책도 힘을 잃습니다.

반대로 작은 디테일이 쌓이면 그것이 실질적인 변화가 됩니다.
티끌을 모아야 태산이 됩니다.

제가 취임하면서
'가짜 일'을 멈추고 '진짜 일'에 집중하자고 하였습니다.

국회 대기시간을 줄이는 등
불필요한 업무를 덜어내기 위한 노력도 계속해 왔습니다.

다만, 그런 변화가 우리 직원들이 체감할 만큼 충분했는지는
간부들이 스스로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는 단순히 비효율과 관행을 줄이는 데 그쳐서는 안 됩니다.
불필요한 일을 덜어낸 자리는 '진짜 일'로 채워야 합니다.
그러려면, 무엇이 진짜 일인지 제대로 분별해야 합니다.

보고를 위한 보고, 형식을 위한 형식이 아니라
기업과 산업에 실제 변화를 만드는 일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진짜 일입니다.

지금은 판이 흔들리는 시대입니다.
하지만 우리만 흔들리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나라도 다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중심을 잡고
한 발 더 나가는 나라가 결국 앞서갑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위기 대응에 그치지 말고
구조를 바꾼다는 생각으로 임해 주기 바랍니다.

정책을 만들 때는 기업의 언어로 생각하고,
작은 디테일 하나까지 끝까지 챙겨주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디테일이 모여 정책이 되고,
그 정책이 모여 기업의 힘이 되고,
그 기업의 힘이 결국 국력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대통령 업무보고 이후,
어느덧 6월 업무보고도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무엇을 추진했고,
어떤 성과를 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동안 발표한 과제들이 현장에서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지,
기업과 지역이 체감하고 있는지, 숫자와 사례로 설명할 수 있도록
지금부터 빈틈없이 챙겨주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도 형식적인 점검이 아니라,
무엇을 더 밀어붙이고 무엇을 고쳐야 하는지
치열하게 논의하는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끝